

세상을 바꾸는 여성

이제 여성들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더 이상 남성들의 언어폭력을, 성폭력을 묵과하지 않는다.

더 이상 숨어서 흐느끼지 않고 고발하고 맞서 싸우고 있다.

기획/가부장성을 분쇄하라

초점/일반직? 종합직?

북녀를 만나고 싶다

여성의 눈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한 가정폭력

수필/여직원은 시집가면 그만 아니냐고 하더라...



성폭행에 대한 성찰 없이 진보는 없다

9살 때 성폭행을 당한 김부남은 21년 후에 가해자를 살해한 후 법정 진술에서 “나는 짐승을 죽였다.”고 했다. 그 사건은 성폭행이 한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 다시 한 번 깊게 새겨두는 계기가 되었다. 93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일명 우조교 성희롱 사건)’은 직접적인 강간이 아니라도 성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이 사건 이후에 일반 남성의 인식은 ‘말조심, 행동조심하지 않으면 여자들에게 크게 당한다.’ ‘돈 있으면 여자 희롱해라.’ 정도에 머물렀지만 잘못된 성인식에 경종을 울린 것은 커다란 성과였다.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일련의 성폭행 사건들을 보니 성폭행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아직도 한심한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장원 사건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여론공방은 성폭행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너무도 잘 보여준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떠들대는 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단순한 코드들이다. 아직도 강간만이 성폭력이라는 생각, 여성이 동기를 유발했기 때문에 당해도 싸다는 생각, 남성의 성충동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이라는 것...

인격을 가진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발상을 집단이 하고 있는 것이다. 동기를 유발했다면, 추행하고 강간해도 마땅한가. 그가 자신을 존경하고 믿었던 한 명의 어린 인격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이 대등한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인지 생각해 보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이 사실을 남성들은,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어머니들은 옹호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 대해 여론이 특히 들끓었던 원인은 그가 시민운동 단체에 적을 두고 있었고 그 자신이 스스로 포장한 도덕성과 헌신성 때문일 것이다. 진보운동의 대외적 이미지를 걱정하는 진보(?)적인 남성들은 맹렬히 그를 옹호했고 피해 여성을 비난했다. 진보진영의 기반이 그렇게 한 순간에 허물어질 정도로 허약한 것인가. 그렇게 무너질 것을 은폐한다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인가.

518 전야의 386 술자리 폭로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그 날 사건의 정황으로 보아 문제의 시발이며 가장 문제적인 사건은 우상호가 임수경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여성 종업원의 서비스를 허용한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는 비

난거리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 386이 광주에서 그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지난 행적으로 보아 유감이라고들 한다. 왜 하필 그런 날 여자를 끼고 술을 마셨냐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과연 ‘그 날’ 이기 때문에 문제였나?

임수경씨가 처음 글을 올린 ‘제3의 힘’ 홈페이지에서는 폭로 글 전문을 삭제했다고 한다. 그 역시 진보(?)를 지키는 용감한(?) 남성이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 올라온 무수한 진보(?) 남성들의 비난의 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저도 평소에는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날...’ 진보적인 남성들의 대다수는 이 사람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믿고 싶다. 그런데 이 소심한 사람들이 진보진영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논리로 옹호하는 것에 반박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

진보진영의 명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 제 부인을 난자한 미친 사람까지 자기가 진보운동단체의 회원이었고 여성의 입장에 이해한다고 떠벌이며 면죄부를 받으려 하는 것이다.

여성문제에 관한 한 진보운동을 하는 남성들의 인식이 일반의 남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게 현실이다. 나는 아직도 ‘매매춘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옹호하고 때로는 단체로 매춘을 하러 가는 진보적인(?) 남성들을 본다. 밖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제 집에서는 아내와, 어머니와 누이들에게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진보적인(?)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일상 언어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말 정도로 타인의 비판을 듣는 것은 재수 없는 일이고 피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페미니스트는 언제 꼬투리를 잡을지 모르는 피곤하고 짜증나는 존재로 여긴다.

우리 당은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할 것을 공언했다. 우리 당의 여성정책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을 믿고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당이 진정 여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당인지, 특히 우리 당의 남성 당원들이 여성문제를 노동문제나 다른 인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열의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남녀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것은 무척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이다. 

‘진보적인’ 남성들에 대한 쓴 소리

홍승하/당원(여성위원회 선전홍보국)